

Hans-Jörg Ronsdorf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쉽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좋은 복음

하나님의 좋은 복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Hans-Jörg Ronsdorf

판권

하나님의 좋은 복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26년 개정 신판. 무료 내려받기: www.hans-joerg-ronsdorf.de

인쇄본 제5판(2021년 11월)은 ISBN 978-3-9820715-0-3(독일어판 ISBN)으로
출간되었습니다.

© Hans-Jörg Ronsdorf - 모든 권리 보유. 본문을 바꾸지 않는 한, 널리 나누어
주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Hans-Jörg Ronsdorf, Albis 6 1/2, 87477 Sulzberg

이메일: hj-ronsdorf@t-online.de

홈페이지: www.hans-joerg-ronsdorf.de

차례

세 마디 말과 하나의 이야기	7
복음	7
하나님의 복음	10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11
죄?	13
자유 - 강요는 없다	15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17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18
하나님 나라의 복음	19
이 소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19
하나님의 왕적 통치란 무엇인가?	21
하나님의 통치 - 모두를 위한 최선	22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24
왕과 십자가	26
왕의 시해	26
기대와는 다르게	29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	30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시다	31
하나님께 제물이 필요한가?	33
선으로 악을 이기다	36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	37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	39
십자가, 미련한 것	40
다시 집으로	41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42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45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7
보이지 않는 세계 - 어둠의 세력	51
세력들과 사람들	52
복음과 세력들	53
세력들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54
십자가의 승리	55
자유는 가능하다	56

평화의 복음	57
복음 - 성취된 약속	58
복음의 소망	60
하나님의 새 세상에 대한 꿈	63
복음 - 구원을 주는 능력	65
복음에 순종하기	66
예수의 제자가 되기	67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	67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68
복음을 외면하기	72
모든 것이 드러난다	72
하나님의 진노	74
영생과 지옥	76
다른 복음	78
복음이 아닌 것	79
맺는 말	81
이제 어떻게 할까?	82

축하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버리지 말고 간직하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 해도 그렇습니다. 또는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책을 읽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빕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한 번 끝까지 읽어 보십시오. 두 번째 읽을 때에는 각주에 적힌 성경 본문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오직 성경만이 보여 줍니다. 저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그리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세 마디 말과 하나의 이야기

복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예수 이야기가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증언합니다. 그들은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과 미래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예수 이야기입니다. 세 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¹

그분은 왕이십니다.²

우주 위에 계신 왕.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위에 계신 왕. 의롭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 용서하시는 왕,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왕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들, 곧 처음부터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장들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마디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의 심장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나와. 그리고 우리 행성 전체, 우리의 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개인에게 보내는 소식으로 읽으십시오.

복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복음은 그들의 정체성에 속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1. 사도행전 2:36; 4:24; 11:20; 15:17

2. 사도행전 17:7; 디모데전서 6:15; 요한계시록 17:14; 19:16

복음은 그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의 보물입니다. 그들의 약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폭력 없는 무기입니다. 이에 견줄 만한 소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나 교회가 만들어 낸 경건한 신조어가 아닙니다. 예수 시대와 그 이전에 이 말은 일상 언어에 속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기쁨과 안도감을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무언가 좋은 일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뜻으로.³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원전 63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Augustus)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일은 훗날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쁜 소식으로 경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칭호는 그 뒤 많은 황제에게 불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관한 이 “복음”에서 몇 문장을 옮겨 보겠습니다.

“이날이 세상에 다른 얼굴을 주었다. 그의 탄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빛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망했을 것이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사람은 이토록 큰 은사로 채워졌으니, 그는 우리와 다가올 세대에게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제 모든 다툼이 끝났고, 그가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조상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보다 더 큰 이가 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⁴

그보다 700년 전에 옛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승리를 알리는 전령이 산을 넘어 달려온다!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평화와 구원을 선포한다. 그가 시온 성에게 말한다. 너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⁵

3. 누가복음 1:19

4. 소아시아의 프리에네(Priene) 달력 비문, 기원전 9년; 줄여서 자유롭게 옮김.

5. 이사야 52:7



이사야는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영원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역사의 주인이신 분. 한 인간이 아닙니다. 또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칭한 자가 아닙니다. 황제의 탄생 소식은 하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통치자가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줍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을 말입니다.

“복음”은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승리를 쟁취하고 적을 물리쳤을 때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복음은 승리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두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세상을 위해 싸우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리심과 하나님의 보좌로 높이심이 예수를 세상의 주님이요 구원자가 되게 합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⁶ 우주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영생을 베푸십니다!⁷ 우리를 위해 모든

6. 마태복음 28:18; 사도행전 2:36; 에베소서 1:20-23

7. 누가복음 24:47; 사도행전 2:38; 5:31; 10:43; 13:38; 26:18

것을 내어 주신 왕.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사사로운 이익을 좇지 않으시고 숨은 속셈도 없으시기에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왕입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추린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두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왕으로 증언하는 일이 오늘날까지 위험할 수 있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실제로 위험합니다. 이 왕을⁸ 높이는 일이 통치자와 황제와 왕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순종에서 나온 일인데도 말입니다. 예수께 충성한 대가로 그들은 드물지 않게 박해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고 우리의 예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⁹ 그분은 그들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 소식에는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할 만한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복음의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아버지, 아들, 성령에게서. 그분이 복음을 고안하신 분입니다. 복음은 그분의 마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서. 땅과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말입니다.¹⁰ 복음에 담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옵니다.¹¹ 오직 그분에게서만. 복음은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진리입니다. 믿을 만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울 수 있습니다.¹²

8. 사도행전 17:7

9. 요한계시록 1:5

10. 로마서 16:25; 디모데후서 1:9

11. 고린도후서 5:18

12. 마태복음 7:24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¹³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¹⁴ 그분이 복음 안에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모든 것은 유효하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시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¹⁵ 모든 영광이 그분께 있습니다.¹⁶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분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은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마음은 넘쳐흐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역사상 가장 큰 되찾기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들을 되찾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가족을 갖기 원하십니다!¹⁷ 우리는 태어난 그대로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의 소식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모습이 아닌 세상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모습도 아닌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개입하시는 일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세상을 정직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소식은 속으로 무너지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 양심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13. 데살로니가전서 5:24; 히브리서 10:23; 베드로전서 4:19

14. 디도서 1:2; 히브리서 6:18

15. 에베소서 1:6, 9, 12, 14

16. 요한계시록 5:11-14

17. 시편 103:13; 이사야 64:8; 말라기 2:10; 요한복음 14:2; 히브리서 2:10; 요한일서 3:1-3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 두려움 속에 있고, 씬이 없고, 공허하고, 병들고,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소식은 모두 죽게 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¹⁸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인류의 상당수가 가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웁니다. 많은 사람이 낙오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결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자살을 마지막 선택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문제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부유한 나라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행운을 누린 사람들.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들. 그러나 건강하고 풍족한데도 무의미함과 내면의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질병과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자연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얼굴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은 질문과 걱정과 곤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우주이며, 사랑과 의미와 용서와 붙들 곳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분주함과 기분 전환 아래 그 부르짖음이 감추어지거나 억눌려 있다 해도 말입니다.

복음은 서로 전쟁 중인 나라들에게 찾아옵니다. 다툼과 불화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의가 자리 잡고 사는 세상에 찾아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는 세상. 서로 차별하는 세상. 가장 약한 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세상. 아이들이 일해야 하고 여성들이 착취당하는 세상. 국가 전체가 체계적으로 인권을 짓밟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세상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목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며 좋은 것도 많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편향되거나 비관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18. 로마서 5:12-14; 6:23

우리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에는 언제든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혹독한 방식으로. 실패와 무너짐과 질병과 고난을 겪고서야 비로소 이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어렵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¹⁹

죄?

현대적인 말이 아닙니다. 매력 없고 오해받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의 관점, 그리고 성경이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 속합니다. 원치 않는 모든 일, 실패와 무너짐과 적대감과 혼돈의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은 사람을 묘사할 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살아가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는지. 성경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가차 없이 정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²⁰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하나로 묶어 구별 없이 내리는 판정은 성경의 세계관에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는 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죄는 중앙처럼 우리 안에서 따로 떼어 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 하나보다 훨씬 심각한 일입니다. 죄는 개개인의 악행을 모아 놓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존재에 스며들어 그것을 점령한 능동적이고 악의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19. 확성기의 비유는 C. S. 루이스(C. S. Lewis)의 “Über den Schmerz”(The Problem of Pain, 한국어판 『고통의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20. 에베소서 2:1

죄와 함께 죽음이 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샅처럼.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죄와 죽음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보편적인 힘입니다.

권세로서의 죄는 우리의 인격을 해로운 방식으로 빚어 갑니다. 죄는 우리를 완벽주의자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안녕이 걸린 일에는 비겁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웃의 안녕이든 아프리카에서 죽어 가는 사람의 안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익이 걸린 일에는 이기주의자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나르시시스트, 사기꾼, 중독자, 모략가, 광신자, 간음하는 자, 성폭행범으로 만듭니다. 이 목록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갇힌 자나 병든 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피해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징집된 능동적인 요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대리인으로, 죄의 도구로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간혀 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공범 관계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관계를 외면하는 한, 죄의 본질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억누르거나 고삐를 잡아 둘 수 있거나 그래야 하는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무질서, 적대, 반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단지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는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행복만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이렇게 최대한의 고발을 들으셨더라도, 부디 계속 읽어 주십시오!

인간 삶의 근본이 되는 관계,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짐은 우리 서로 간의 다른 모든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만, 홀로만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 지구적 인류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의 이 진단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주치의가 여러분이 걸린 치명적인 병에 대해 정직한 진단을 숨긴다면 반기시겠습니까? 더구나 그 의사가 같은 자리에서 그 병을 이길 약이나 수술을 약속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깨닫고 인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외로 여기기를 좋아합니다. 아니면 상황의 심각성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갖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는 별 관심이 없는 세상에 찾아옵니다. 하나의 역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이 행성, 그분의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무래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싸우신다는 증거입니다. 고난과 악과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²¹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는 - 큰일에서든 작은 일에서든 - 큼니다.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혐오와 죄에 대한 그분의 정죄는 “하나님의 진노”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²²

우리가 가해자로서 그것과 동일시되는 그 악을 하나님은 그만큼 강하게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강하게 모든 사람을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자유 - 강요는 없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는데도²³ 하나님은 사람에게 “예”라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사랑은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자유와 책임은 여전히 인간의 본성에 속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다르게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러나 죄인으로서 사람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아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1. 로마서 5:8; 요한일서 3:1; 4:7-11

22. 요한복음 3:36; 로마서 1:18; 5:9; 에베소서 2:3; 5:6; 골로새서 3:6; 데살로니가전서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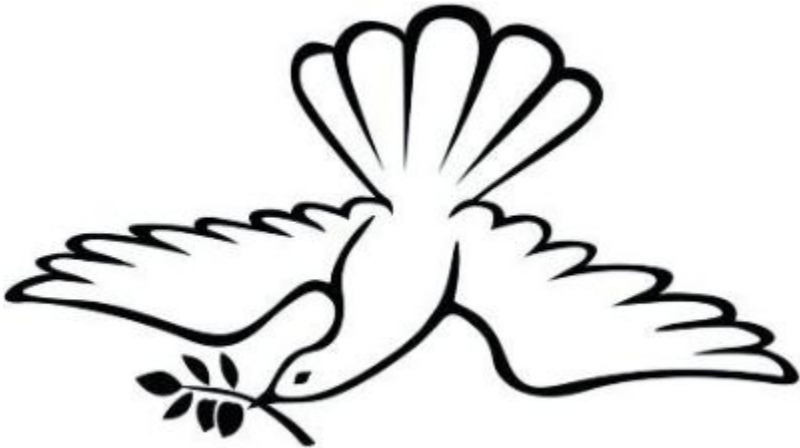
23. 고린도후서 4:4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줍니다. 마음과 양심을 밝혀 줍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 앞에서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치열하게 다투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얻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화목하려는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깨우치려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의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든, 어떤 장소든 사용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죄와 잃어버린 상태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시고, 동시에 구원과 건져 내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빛나는 순간에는 규칙도 틀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뜻밖에, 신비롭게, 사랑 넘치게, 또는 철저하게 자기 삶에 들어오셨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돌이키라는 긴급한 명령입니다.²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식에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습니다.



24. 사도행전 17:30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주와 함께 땅을 정성껏 돌보고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였던 낙원 동산은 온 땅으로 넓혀져야 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그리고 그들, 곧 모든 사람은 그분의 가족.²⁵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참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와 그렇게 함께 살고 일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보호와 복 안에서.

그러나 그때, 태초에,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특권으로 받은 삶의 터전인 낙원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들어왔습니다. 간교한 뱀이. 뱀 뒤에는 한때 빛나던 하나님의 천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였습니다. 반역하고 죄에 빠진 자였습니다. 사탄, 곧 마귀는 이 생각을 사람들에게 팔고 싶어 했습니다. 더 낮고 더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깨달음과 진보라고 포장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좋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자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단순한 계명 하나를 무시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지 않고 아껴 두신다고 걱정했던 것일까요?²⁶

그들은 이 걸음에 대해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낙원을 잃었습니다. 죽음, 곧 덧없음이 -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 그들의 삶 속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²⁷ 죽음은 퍼져 나갔습니다. 유전되는 병처럼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옮겨 갔습니다. 우리도 그 후손에 속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인간은 창조주 없이 삶을 꾸려 갑니다. 스스로 결정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5. 이사야 63:16; 64:8; 누가복음 3:38; 사도행전 17:28-29

26. 창세기 3장

27. 로마서 5:12-21

창조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더 매력적인 신들을 찾아냈습니다. 사람은 본디 종교적이어서 무언가에 기대고 무언가를 믿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현대인의 행동과 그들의 대체 신들, 곧 돈과 권력과 성도 그것을 보여 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큰 규모에서든 작은 규모에서든, 만족을 모르는 탐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갇힌 채, 본질적이고 삶에 의미를 주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의식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²⁸ 곧 우리의 창조주를 떠났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없으니 창조 세계와의 건강한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자기가 사는 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로 함께, 창조 세계와 함께 잘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좋은 계명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법과 계명은 폭군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결론을 사람들은 흔히 내립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옹아매려는 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뒤따라가십니다. 그 세상의 온갖 문제와 위기의 현장과 함께. 그분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²⁹ 여러 겹의 강도로 나타나는 악은, 큰일에서든 작은 일에서든,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에덴 바깥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지평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의 모든 결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날마다 눈앞에서 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좋은 결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둠으로 갑니다. 우리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어둠 속에서 비틀거립니다. 길도 목적지도 모릅니다.

28. 시편 36:9; 잠언 14:27; 예레미야 2:13; 17:13

29. 요한복음 3:16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복음은 악을 이기시려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하강하는 소용돌이를 멈추고 어둠 속에 빛과 생명과 소망을 가져오시려는 계획입니다.³⁰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다시 돌아오도록 말입니다.³¹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나쁜 것에서 마침내 좋은 것이 나오도록 말입니다.³² 하나님께서 다시 가족을 가지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복음은 오늘의 모습이 그대로 머물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그분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에는 여러 차원과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잘 연마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것은 한 면에서만 아니라 깎인 모든 면에서 빛을 굴절시킵니다. 복음은 여러 빛깔로, 놀라운 광채로 빛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³³

이 소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이 소식은 한 인격 안에 담겨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한 인격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신앙고백도 아닙니다. 교리문답도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질문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 그러나 하나님이심을 뒤로 미루어 두시고,

30. 시편 27:1; 43:3; 이사야 9:2; 60:1; 마태복음 4:16; 요한복음 1:4-9; 3:19-21

31. 누가복음 2:10

32. 창세기 50:20

33. 고린도후서 4:4

낮은 모습으로, 아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아주 작게 만드셨습니다.³⁴ 우리가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분. 우리처럼 시작이 있지 않으신 분.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³⁵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우리 눈높이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피조물들 곁에 오신 창조주. 사람의 모습으로.³⁶ 그분은 보이셨고, 들리셨고, 만져지셨고, 안기셨습니다.³⁷ 그분은 보셨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움직이셨고, 우셨고,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어루만지셨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해하도록 말입니다. 그분은 통치자의 화려함 속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건축 일꾼이 왔습니다. 갈릴리의 하층민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로써 권한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보내셔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새 용기를 주고, 갇힌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다. “너희는 자유다! 너희의 사슬이 풀린다!”³⁸

예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졌다.³⁹ 그분의 삶 전체, 말씀과 행하심은 이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이며, 이 좋은 소식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⁴⁰ 그분을 본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⁴¹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그 자체입니다.⁴²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려면,

34. 빌립보서 2:6-8

35. 요한복음 1:14

36. 빌립보서 2:5-11

37. 요한일서 1:1-3

38. 이사야 61:1-2

39. 누가복음 4:16-22

40. 골로새서 1:15; 히브리서 1:1-3

41. 요한복음 14:9

42. 히브리서 1:2

예수에게서부터 그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묘사된 그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예수의 네 생애 기록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⁴³

예수와 함께 좋은 소식이 시작됩니다.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포하셨다.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세우시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⁴⁴

하나님의 왕적 통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입니다. 우리 세상을 위한, 미래가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미래입니다.

많은 유대인은 이것을 로마 점령군이 패배하고 그들의 폭정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오신 분은 평범한 사람이었지, 정치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의 다윗 왕좌에서 시작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는 한 떠돌이 설교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 나라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⁴⁵ 그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 나라는 다릅니다. 폭력도, 억압도, 군사 정복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지만, 그 초점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계획된 나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기존의 정치 구조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땅을 두루 다니시며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분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43. 마가복음 1:1

44. 마가복음 1:14-15

45. 요한복음 18:36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하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겨냥합니다. 왕이나 군인 같은 눈에 보이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낙원 동산에 있던 유혹하는 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악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행동하십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권세를 받아 악에 맞서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 당시의 로마인들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차원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가장 큰 원수는 악, 불의, 위선, 사랑 없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는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습니다. 죄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죄와 고통과 두려움, 고난과 죽음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 모두를 위한 최선

30년 동안 숨겨진 삶을 사신 뒤, 예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분은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위선을 드러내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언젠가 어떤 모습일지가 우리 인간에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의 사역은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예수 안에서 이미 빛을 발하는 큰 목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께서 맞서 싸우신 모든 것이 더 이상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족과 함께 사시는 새 땅입니다.⁴⁶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정성껏 다스리는 새 땅입니다. 폭군과 독재자가 아니라. 좋은 소식은

46. 요한계시록 21:3-5

이것입니다. 황제와 대통령을 거느린 세상 나라들은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영원히 남습니다.⁴⁷

그 나라는 예수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 나라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감추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습니다. 왕은 비유 속에서 외국으로 떠난 주인처럼 잠시 떠나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귀환을 기다립니다.⁴⁸ 오늘 그 나라는 “잠행 중인” 나라입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수도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 제국들과 정치 구조들 곁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맹세한 모든 곳에서. 그들은 어떤 폭력도 쓰지 않고 이 나라를 세워 갑니다.⁴⁹ 그들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물러나신 그들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⁵⁰ 왕의 귀환은 공개적이고, 눈에 보이며, 엄청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세상 제국이 끝납니다. 세상일에 악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도 끝납니다.

좋은 소식은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는 아직 오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잠정적이고 신비로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다가올 것을 미리 맛보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입니다.⁵¹ 온 땅에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왕의 다스림 아래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증언합니다. 오늘날까지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과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만유의 주님이 되셨다는 선포입니다.⁵² 아들은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옛

47. 다니엘 2:44-45; 7:26-27

48. 마태복음 25:14-30

49. 마태복음 5:43-48

50. 사도행전 1:10-11

51. 로마서 14:17

52. 사도행전 2:36; 3:20-23; 10:36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왕관을 쓰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⁵³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된 모든 이가 이것을 전했습니다.⁵⁴ 그들은 그분을 전했습니다.⁵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이상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왕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자도 필요합니다.

네 권의 생애 기록을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들을 읽으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알리려고 스스로 아무 애도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세워지는 것조차 원하지 않으십니다.⁵⁶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⁵⁷ 귀신 들린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그들 안에서 그분의 참된 정체를 알고 있던 더러운 영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도,⁵⁸ 그는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만이 예언된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지 약 2년이 지났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도,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큰 임금의 성 예루살렘에서입니다.⁵⁹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증오가 그 일을

53. 로마서 15:19; 고린도전서 9:12; 고린도후서 2:12; 빌립보서 1:27; 데살로니가전서 3:2

54. 사도행전 8:4, 12, 25, 35, 40; 10:36; 11:20; 13:38; 14:7, 15, 21

55. 사도행전 5:42; 에베소서 3:8; 빌립보서 1:17-18; 골로새서 1:28

56. 요한복음 6:15

57. 마가복음 1:34, 43-45; 5:43; 8:26

58. 마태복음 16:13-20; 누가복음 9:18-21

일으킬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⁶⁰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야 했을까요? 그것이 좋은 소식일 수 있었을까요? 죽임을 당하는 왕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⁶¹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값을 치르고 종살이에서 풀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자기중심과 자기 사랑에서, 온갖 얽매임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힘에서.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세상을 바꾸는 구원 사건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한 가지를 이루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⁶² 그토록 모순되게 들리던 바로 그 일입니다.⁶³ 그분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⁶⁴ 그분은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그분을 위해 죽으실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습니다.⁶⁵ 오직 선한 일만 하시고 선한 말만 하신 분. 아무 죄도 없으신 분.⁶⁶ 우리 모두와는 전혀 다른 분. 헌신과 이웃 섬김으로 가득한 삶. 이기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삶. 너무나 귀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서 결코 끝나서는 안 되었을 삶. 복음은 예수의 삶과 행하심입니다. 그분의 도덕적 완전함만이 아닙니다. 죄와 질병과 귀신 들림과 죽음에 맞선 그분의 저항과 싸움과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 삶은 죽음에서 절정에, 성취에, 아니 궁극적인 승리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죽음. 우주에서 일어난 권력의 이동.

그분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고, 귀히 여기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59. 시편 48:2; 마태복음 5:35; 21:5

60. 마태복음 16:13-21; 마가복음 8:27-32; 누가복음 9:18-22, 44-45; 18:31-34

61. 시편 49:7; 마태복음 20:28; 마가복음 10:45; 디모데전서 2:6

62. 누가복음 9:51

63. 누가복음 12:50; 요한복음 17:4; 19:28-30

64. 요한복음 18:4

65. 히브리서 2:14

66.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2:22; 히브리서 4:15; 요한일서 3:3, 5

차별 없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병든 자나 죄인이나. 바로 이 예수께서 전파됩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살아 계신 분. 오늘 복음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분.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분.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납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던 그때처럼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을 통해,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곳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그 증거는 날마다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께 돌아와 그분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곧 우리 죄의 용서가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⁶⁷

왕과 십자가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너무 이른 마지막이었습니다.⁶⁸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훨씬 더 큰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구속!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깊은 소원이요 뜻이었습니다.⁶⁹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막으로 다가가 봅시다. 그것은 너무나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는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왕의 시해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분은 왕처럼, 아니 왕으로 영접을 받으십니다. 마침내 왕적 통치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67. 요한복음 3:16; 요한일서 4:9-14

68. 시편 102:24

69. 누가복음 22:42

성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순례자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꼬박 한 주를 그곳에 계십니다.⁷⁰ 오늘날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궁지에 몰아넣고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만, 번번이 그분의 지혜 앞에서 잘못이 드러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사랑 없음을 그분은 폭로하십니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성전에서 하신 일, 곧 성전 뜰에서 잠시 손으로 직접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신 일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도를 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 거슬리는 나사렛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 버릴 계획을 꾸밉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 중에 그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니다. 빵을 들어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⁷¹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멀리 미치고 얼마나 깊은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 중 하나에게 배반당하십니다.⁷² 붙잡히십니다.⁷³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십니다.⁷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죄 없이 정죄를 받으십니다.⁷⁵ 고문을 당하십니다.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력들의 노리개가 되십니다. 그분은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⁷⁶ 십자가 사건에서는 잘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도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 하나로 뭉쳤습니다.

인간을 짓밟는 이 구경거리는 십자가 처형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 가운데 하나로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70. 마태복음 21:27장

71. 마태복음 26:26-30; 마가복음 14:22-26; 누가복음 22:14-20

72. 마태복음 26:14; 마가복음 14:10

73. 요한복음 18:1-11

74. 요한복음 18:12-24

75. 요한복음 18:28-19:16

76. 누가복음 22:53

금요일에.⁷⁷ 두 범죄자와 함께, 그들을 왼편과 오른편에 두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해가 가장 높이 뜨는 낮 열두 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 어둠이 덮칩니다.⁷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⁷⁹ 그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들려진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⁸⁰ 헬라어 *tetelestai* - 예수께서는 아마 아람어로 외치셨을 것입니다 - 는 “임무가 완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대속물이 치러졌습니다. 이 말씀 직후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⁸¹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고 모든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깊이 흔들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⁸²

많은 사람이 오래전부터 바라던 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하고, 더 잔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폭력과 증오와 어둠의 세력들이 승리했습니다.

예수께 씌울 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 범죄자의 죽음을 죽입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맞서지 않으셨습니다.⁸³ 그분의 기도는 유례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⁸⁴ 아버지께서는 고난의 길을 그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을 죽음에서 건져 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⁸⁵

예수께서는 아주 빨리,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들보다 먼저 숨을 거두십니다. 유대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자기

77. 요한복음 19:17-24

78. 누가복음 23:44

79. 마태복음 27:46

80. 요한복음 19:30

81. 누가복음 23:46; 요한복음 19:30

82. 마가복음 15:39

83. 이사야 53:7; 베드로전서 2:23

84. 누가복음 23:34

85. 요한복음 3:16; 로마서 8:32

무덤에 듭니다.⁸⁶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모든 사람에게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희망은 가장 마지막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 희망마저 죽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오는 이들은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몇 톤이나 되는 무덤 돌이 무덤 옆에 놓여 있습니다. 열린 무덤 안에서 그들은 예수의 몸을 찾지 못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그 대신 천사들이 있어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⁸⁷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아주 천천히, 그들의 선생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그분을 보고 만지게 되기까지. 정말 그분입니다. 같은 분이지만 어딘가 다른 분. 부활하신 분. 새로운 몸. 그러나 손과 발의 못 자국, 옆구리의 상처가 뚜렷이 보입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지만, 잠긴 문을 통과해 들어오십니다. 여기 계시다가 또 저기 계십니다.⁸⁸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십니다.⁸⁹ 다시 살아나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계신 그분은 다른 분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그들의 예수이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40일 동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지냅니다. 그분은 많은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그들의 의심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들의 방향을 새로 잡아 주십니다. 그들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⁹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분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86. 이사야 53:9; 누가복음 23:50-56

87. 누가복음 24:1-12; 요한복음 20:1-10

88. 누가복음 24:13-49; 요한복음 20:11-31; 21:1-14

89. 고린도전서 15:5-7

90. 사도행전 1:3

원대한 계획이었고, 그 중심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영적 지진의 진앙. 새 시대의 축이요 중심점. 우주에서 일어난 전선과 권력의 교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십자가가 이런 우주적 의미를 가져야 하느냐고. 십자가는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것을 뜻하지 않느냐고. 십자가 처형은 사람에게서 인간다움을 빼앗고, 극도로 모욕하고, 기억에서 지워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먼 곳에서 봅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의 세계와 문화에는 낯설게 보이는 세계와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이 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값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전파했습니다.⁹¹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⁹²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나중에 억지로 의미를 갖다 붙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음 전과 후에 하신 말씀을 통해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미래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그분의 자기희생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⁹³ 예수께서 제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없애 버리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⁹⁴

91. 사도행전 2:22-24; 3:18, 24; 8:35; 9:22; 13:32, 38; 18:28; 26:23

92. 고린도전서 15:3; 갈라디아서 1:4; 3:13; 데살로니가전서 5:10; 디도서 2:14; 베드로전서 2:24; 요한일서 3:16; 요한계시록 1:5

93. 고린도후서 5:19-21

94. 요한복음 1:29, 36

예수께서 저항 없이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분명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그러지고 고문당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화목을 위해 내밀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시다

이스라엘에는 동물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런 제사는 일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하나의 제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드린 모든 동물 제사의 성취로 묘사합니다.⁹⁵ 이것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그림입니다. 제물이라는 생각은 제사 제도 밖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자신을 내어 줄 때가 그렇습니다.

동물 제물은 제단에서 조용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분은 그냥, 또는 빨리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물의 본질에는 피 흘림과 죽음이 속하지만, 고통이나 잔혹함은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의도적으로 폭력적이고 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본보기로 겁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았든 몰랐든, 예수께 가한 그들의 폭력은 하나님께 가한 폭력이었습니다.

세상의 폭력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응답은, 악의 세력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력들을 견디고 흡수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격을 받으실 때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용서란 내적인 고통을 견디고 흡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쓴 뿌리와 원한과 증오와 복수심이 생겨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희생 제물로 세상에 오십니다. 결국 그 제물의 죽음은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단지 의식적인 동물 제사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들은 참된 제물의 모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⁹⁶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95. 에베소서 5:2; 히브리서 7:27; 9:14, 26; 10:12, 14

96. 고린도전서 15:3

어린양이셨습니다.⁹⁷ 제물이신 그분만이, 우리가 우리 죄에서, 우리의 부정함에서 깨끗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물에 손을 얹거나 손으로 누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제물과 동일시합니다. 무언가가 제물에게로 옮겨 갑니다. 더러움과 부정함이 제물에게로 옮겨 가서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제물은 일종의 대리자가 됩니다. 제물, 더 정확히 말하면 제물의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란 우리 죄가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가 저지른 일도 무효가 됩니다. 죄는 덮이고, 그 힘은 꺾입니다. 깨어졌던 것이 온전해집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동물 제사가 가리키던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제사들을 끝내셨습니다.⁹⁸ 더는 필요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죄 없는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범죄와 악행,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지른 수없는 잘못, 우리의 불순종을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마치 그분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없애 버리셨습니다.⁹⁹ 자신의 죽음 속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죄들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곳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인격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고, 아니 심판하셨습니다.¹⁰⁰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다른 십자가 처형자들의 죽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분이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를 짊어진 제물로서. 온 세상의 죄와 하나가 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죄의 정죄를 자기 안에서 견디는 것은,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¹⁰¹ 그것은 단 한 번뿐인 일입니다. 트라우마가 될 만한 십자가 처형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그 값이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십자가 사이에 있던 이 십자가에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97. 요한복음 1:29, 36; 베드로전서 1:18-21

98. 히브리서 7:27; 9:26, 28; 10:10, 14

99. 히브리서 8:12; 10:17; 미가 7:19

100. 로마서 8:3

101. 로마서 8:3; 고린도후서 5:21

이 고난은 미래가 인자의 손에 있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신 고난의 깊이는 여전히 신비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의 유일무이한 희생입니다. 그 희생은 우리가 결코 되돌리거나 해낼 수 없었던 것을 이룹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너그러움과 호의의 증거이며 바탕이고 출발점입니다.

죽은 그리스도, 죽어 버린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¹⁰²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정말로 받아들이셨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기적 이상입니다. 느낌표 이상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유일무이한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¹⁰³ 그것은 그분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¹⁰⁴ 마치 그들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끝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이 필요한가?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제물을 요구하실 수 있는가?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물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속죄를 위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제물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속죄는 범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그분이 값

102. 고린도전서 15:17

103. 로마서 4:24-25; 고린도전서 15:3

104. 로마서 3:21-26; 5:1, 9

치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기꺼이 용서하려 하시고 또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피 흘리는 제물 없이는 안 되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그 끔찍한 십자가 죽음 없이는 안 되는 것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며 간절히 구하십니다. 몹시 놀라시고 망연하신 채로.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께,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지 구하십니다. 고난의 잔이 자신을 지나가게 해 달라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거짓된 정치와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십니다.¹⁰⁵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질문에 답해 줍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그분의 길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그분의 우주이고, 이 세상은 그분의 세상입니다. 그분이 삶의 규칙과 틀을 정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함께 생명으로 끌어올리실 해방자가 필요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해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써 말입니다. 원수인 죽음의 요새에 쳐들어가 사슬과 문을 깨뜨리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은 고난보다 강합니다. 예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극심하게 두려워하셨을까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동일시되는 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 때문에. 마치 그분 자신이 그 죄를 만들어 내고 저지른 자인 것처럼.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 골고다에 있던 사람 가운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짐작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거룩하심, 세상의 수없는 죄, 사람들의 증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서로 부딪칩니다.

105. 마태복음 26:36-46; 마가복음 14:32; 누가복음 22:39

예수께서는 이것을 견디셔야 합니다. 젊어지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죽음 속으로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뜻이 십자가 없이도 가능했다면, 골고다에서 이런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점인 십자가는 여전히 역설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받아들일 만한 형태나 논리로 바꾸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람을 받으시거나 진노를 가라앉히시기 위해 제물이 필요하신가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¹⁰⁶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 있고¹⁰⁷ 장차 올 심판에서 드러납니다.¹⁰⁸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십니다.¹⁰⁹ 그분은 진노를 억누르십니다. 그분은 악을 스스로 젊어지시고 형벌을 포기하십니다. 용서는 젊어지고 견디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불의를 여러 번 친히 견디셨습니다. 골고다는 그 절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견디시고, 우리 인간이 전능했다면 내놓았을 그런 대응을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분은 갓세마네의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드린 예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¹¹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끝내십니다. 그분은 진노를 억누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곳입니다. 그분의 정당한 진노가 불타는 곳이 아니라, 꺼지는 곳입니다. 그 증거는 저항 없이 자신을 내어 주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서.

106. 요한복음 3:36; 로마서 3:5; 에베소서 2:3

107. 로마서 1:18

108. 로마서 2:5, 8; 5:9; 골로새서 3:6; 데살로니가전서 1:10

109. 출애굽기 34:6; 민수기 14:18

110. 누가복음 23:34

결림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노와 폭력이 녹아 사라지는 노심 용용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피를 다 쏟고 힘을 잃는 일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폭발했을 때, 훨씬 더 큰 재앙이 닥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원자로 밑에는 물이 가득 찬 수조가 있었습니다. 녹아내린 노심이 그곳으로 흘러들었다면, 엄청난 증기 폭발이 일어나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이 퍼졌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방사능에 오염되고 물에 잠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손으로 밸브를 열어 물이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유럽을 위해. 그들의 헌신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재앙을 일으킨 바로 그것이 되셨습니다. 바로 죄입니다.¹¹¹

선으로 악을 이기다

그리스도 안에서 악은 끝을 맞습니다. 그분이 악을 스스로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악을 참아 내십니다.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¹¹²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합니다.¹¹³ 그분의 사랑은 악으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사랑이 더 강했고, 승리했습니다! 악은 마음껏 날뛰었지만 결국 졌습니다. 부활하신 분 안에서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화목을 위해 내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폭력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타락하고 죄로 물든 본성에서, 그리고 권력과 복수와 앙갚음으로 물든 마음에서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임재하십니다.¹¹⁴ 십자가에 달리신 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 께서

111. 고린도후서 5:21

112. 고린도후서 13:4

113. 고린도전서 1:25

114. 고린도후서 5:19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¹¹⁵ 예수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덮습니다.¹¹⁶ 십자가에서 하나의 권세인 죄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¹¹⁷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도 꺾이도록. 죄가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십자가의 좋은 소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십니다 -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겸손에서 드러납니다. 섬기고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분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그대로 행하십니다. 골고다 이후 그분의 사랑에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선을 구하고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115. 히브리서 9:14

116. 요한일서 2:2

117. 로마서 8:3

사랑의 가장 큰 계시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어 보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력해지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일그러지도록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의 결과와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보다 더 멀리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곳까지 그분은 몸을 굽혀 내려오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¹¹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 그것은 이런 모습이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으십니다.¹¹⁹ 그분은 상처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권력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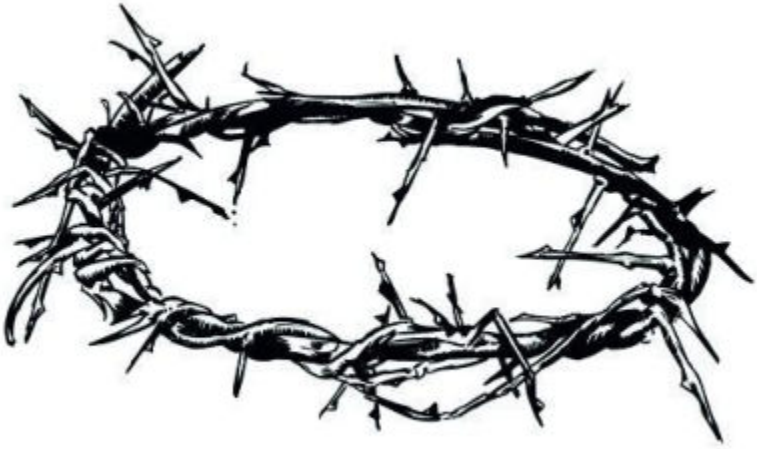
우리는 권력이라고 하면 강제와 폭력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그렇게 상상합니다. 십자가는 그 정반대를 보여 줍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얻으려는 구애입니다. 전혀 다른 그분의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으로.

그분은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의 강함보다 강합니다.¹²⁰ 권력의 법칙을 따르서가 아니라, 사랑의 법칙을 따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118. 고린도전서 1:18

119. 빌립보서 2:6-8

120. 고린도전서 1:25; 고린도후서 13:4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보여 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반역 속에서, 우리 삶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무정부 상태 속에서.¹²¹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곳. 또는 그분이 조연에 불과한 곳. 그러나 그분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¹²² 원수 관계를 화목과 평화로 바꾸시려고.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옮겨 주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습니다!¹²³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121. 요한일서 2:15-17; 3:4

122. 로마서 5:6-10

123. 로마서 6:1-14; 에베소서 2:1-10; 골로새서 2:11-14; 3:1-4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죄 많고 실패한 우리의 옛 삶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¹²⁴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려 하셨다면, 사람들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몸의 한 부분처럼 따로 떼어 내어 수술로 잘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속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¹²⁵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옛 삶이 죽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 미련한 것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세상의 구원자는 하나님 나라도, 구원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창시자가 치욕스럽게 생을 마쳤다는 이유로 그를 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구원, 화목, 용서, 자유를 뜻합니다.¹²⁶ 십자가에 대한 이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 안에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결림이 되는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건져 내는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¹²⁷ 한 사람의 죽음, 공개 처형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24. 누가복음 15:32

125. 에스겔 18:23, 32

126. 고린도전서 1:18, 23-24

127. 고린도전서 1:30

- 승리와 해방, 권력 교체¹²⁸
- 속죄¹²⁹
- 화목¹³⁰
- 용서¹³¹
- 영생¹³²
- 대속물¹³³
- 구속¹³⁴
- 치유¹³⁵
- 가장 큰 사랑의 증거¹³⁶
- 본보기¹³⁷
- 하나 됨¹³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너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고 믿느냐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구원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한 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으셨다는 믿음이 구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다시 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로서 하늘

128. 사도행전 26:18; 골로새서 1:12-13; 2:15; 히브리서 2:14-15

129. 로마서 3:24-26; 8:3, 32-34; 갈라디아서 3:13; 에베소서 5:2; 히브리서 2:17; 요한일서 2:2; 4:10

130. 로마서 5:10; 고린도후서 5:18-20; 골로새서 1:20-22

131. 사도행전 2:38; 에베소서 1:7; 히브리서 10:18

132. 요한복음 3:14-16; 6:51-56

133. 마태복음 20:28; 마가복음 10:45; 사도행전 20:28; 고린도전서 6:20; 디모데전서 2:5-6

134. 에베소서 1:7; 5:25; 디도서 2:14; 히브리서 9:12; 베드로전서 1:18-19; 요한계시록 1:5-6; 5:9

135. 이사야 53:5; 61:1; 누가복음 4:18-19, 23

136. 요한복음 3:14-16; 10:11; 15:13; 갈라디아서 2:20; 요한일서 3:16; 4:10

137. 에베소서 5:2; 빌립보서 2:5-11; 3:10-11; 베드로전서 2:21-24; 요한일서 3:16

138. 요한복음 11:52; 12:24; 에베소서 2:16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¹³⁹ 십자가 뒤에는 아버지의 크고 풍성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¹⁴⁰ 그분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¹⁴¹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십니다.¹⁴² 그분의 아버지 마음으로 다시 데려가십니다.¹⁴³ 그분과의 사귄으로 다시 데려가십니다.¹⁴⁴

그분은 자원하여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모든 결과까지 함께. 죄의 삯, 곧 우리 죄가 낳는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¹⁴⁵ 그렇게 의인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분으로서.

여러분은 벌써 집에 돌아오셨습니까? 아직 망설이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 멀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읽는 것을 아직 견디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단은 성경이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일을 망쳐 버렸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절박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형편에서 해방하기 위해 골고다의 십자가와 예수의 끔찍한 죽음이 필요했다면, 우리 형편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구원자를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쪽에 서게 된 뒤에야.

139. 로마서 8:14, 19, 29; 갈라디아서 4:6

140. 고린도후서 8:9

141. 로마서 8:32

142. 히브리서 10:19-22; 베드로전서 3:18

143. 누가복음 15:11-24; 에베소서 2:13, 18

144. 요한일서 1:3-4, 7

145. 로마서 6:23

꽁꽁 언 보덴 호수(Bodensee)를 말을 타고 건넌 기수의 이야기를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¹⁴⁶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자신이 얼마나 죽음에 가까이 있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비칠 때의 상황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¹⁴⁷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었던가? 낭떠러지 위에! 죽음의 위험 속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나는 멸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안전하다. 여러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큰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멸망하게 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에 계신 분을!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분을. 잃어버리고 망쳐 버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서 벗어나도록. 이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뜻밖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은 구원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146. 구스타프 슈바프(Gustav Schwab)의 발라드 “Der Reiter und der Bodensee”(기수와 보덴 호수, 1826년)에 따른 것입니다.

147. 에베소서 2:1-10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¹⁴⁸ 여러분은 이 노래를 알고 그 선물을 좋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제를 정확히 짚어 주는 가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놀라운 은혜, 그 소리 얼마나 달콤한지! 나 같은 비열한 자를 구원하셨네! 나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눈멀었으나 이제는 보네.

이것이 이 노래의 1절입니다. 이 노래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자로 발견한 전직 노예 상인 존 뉴턴(John Newton)이 지었습니다(1779년). 아니, 더

148. 요한복음 8:32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예수께서는 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¹⁴⁹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고, 용서를 선물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은혜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¹⁵⁰ 은혜란, 우리가 영원하신 분께 등을 돌렸는데도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몸을 낮추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억지로 얻어 낼 수 없습니다. 값없이, 기꺼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¹⁵¹ 오늘날 우리의 법 제도에서 재판관은 법에 따라 법 위반을 판결하고 형벌과 제재를 내립니다. 그러나 범죄는 재판관 자신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재판장이기도 하신 바로 그분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¹⁵² 우리에게 무엇이 닥치겠습니까?¹⁵³

그러나 정죄를 막으려고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바로 그 재판장이십니다.¹⁵⁴ 그분은 자신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의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드러진 그분의 제물, 예수의 피가 우리

149. 누가복음 4:22

150. 사도행전 20:24

151. 사도행전 10:42; 17:31; 로마서 2:3, 16; 3:6; 14:10; 디모데후서 4:1; 히브리서 10:30;

베드로전서 1:17; 4:5; 요한계시록 11:18; 20:12

152. 로마서 3:23

153. 누가복음 18:13

154. 요한복음 3:17

죄를 영원히 덮습니다.¹⁵⁵ 이것은 복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¹⁵⁶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¹⁵⁷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¹⁵⁸ 정당한 정죄가 우리에게서 비켜 갈 때. 다른 분이 우리 자리에 들어서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죄로 물든 우리의 존재를 자신의 죽음 속으로 짊어지고 가십니다.¹⁵⁹

은혜는 또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훨씬, 훨씬 더 많은 것을 선물하는 은혜입니다.¹⁶⁰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¹⁶¹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이십니다.¹⁶²

은혜의 복음은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와도 다릅니다. 은혜는 모든 종교의 끝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 구원이나 영생으로 보상받기 위해 성과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곳. 예수 안에서 이 성과가 우리를 위해 다 채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고, 자유롭게 주어지며, 얻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교만, 흔히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하는 교만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 큰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과주의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자기 성과를 의지하지 않을 때, 그것은 돌파이며 해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룬 선한 일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을 때 말입니다.

복음은 다른 무엇과도 혼동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충격적입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구원의 제안과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십자가에 달린 한 분이 우리의 구원이다. 구속은 받을

155. 요한일서 1:7; 요한계시록 1:5-6; 5:9-10; 히브리서 9:12-15

156. 로마서 1:16

157. 로마서 5:8-10

158. 요한복음 1:14-17; 로마서 5:9, 15; 고린도후서 8:9; 에베소서 1:7; 2:5, 13; 디도서 2:11

159. 데살로니가전서 5:10; 디도서 2:14; 요한일서 2:2; 3:16; 4:10; 베드로전서 2:24; 3:18

160. 누가복음 15:22; 에베소서 2:7

161. 베드로전서 5:10

162. 미가 7:18

자격 없는 은혜의 선물로만 주어진다. 값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에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를 따라갑니다. 은혜는 기독교의 고유한 표지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방에서 채우고 감쌉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니다. 율법의 요구나 노예 감독의 요구가 아닙니다. 은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신을 내어 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은혜로 움직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받는 사람으로서. 은혜가 예수를 따르는 삶의 시작과 마지막 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신실함도, 예수를 따르는 삶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존재 전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요? 근본적이고, 사심 없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초월적이고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이 정말로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세상에 나타났다는 증거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방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뜻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은혜로우실까요?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¹⁶³ 은혜의 근원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오고,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서야 멈춥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수 있도록 마주하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주가 있기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¹⁶⁴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작도 없이. 그분은 외롭거나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 그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로 잴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이야기에 드러난 사랑은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신 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셨습니다.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¹⁶⁵ 그분은 죄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¹⁶⁶ 하나님은 이보다 더 멀리 가실 수 없습니다. 골고다에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63. 요한일서 4:7-11

164. 요한복음 17:24

165. 고린도후서 5:21

166. 마가복음 15:34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내어 주는 사랑하는 이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¹⁶⁷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 말을 자주 씁니다. 거의 남발한다고 할 만큼. 그런데 사회가 그 말로 정확히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조건 없이.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용인하고, 조화를 구하는 사랑.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랑.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사랑.

이 설명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일치할까요?

그렇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용인하신다고. 비판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으신다고. 그것은 어디서 끝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실제로는 얼마나 사랑이 담긴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머니나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다 자란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녀가 좋지 않은 일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과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근거 없이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삶에 있는 악은 거부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화가 나고 슬픔니다. 여러분은 결코 나쁜 것을 좋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 안에서도 사랑과 거부는 어떤 식으로든 함께 속해 있습니다. 악을 물리치고 정죄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해를 입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용인하셔야 할까요?

167. 로마서 5:8

한계가 있고 여러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평화와 정의가 당연한 세상을 갈망합니다. 땅과 사람을 지으신 분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증오와 불의에 대해, 폭력에 대해, 그리고 죄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비참함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저 무관심한 구경꾼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람들의 악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명해 주고, 승인하시는 셈이 될 것입니다. 죄의 파괴적인 권세에 대한 그분의 반응은 언제나 진노와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사랑은 신적이고, 끝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순결합니다. 손 놓고 있는,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가 굳센 구원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다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끌어내기 원하시고,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죄인이 변하기 전에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죄 한가운데 있는 그를 사랑하십니다.¹⁶⁸ 그러나 그분은 그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기 원하십니다.



168. 요한복음 3:16; 로마서 5:8; 고린도후서 5:14; 에베소서 2:4-5; 디도서 3:4-5; 요한일서 4:7-10

보이지 않는 세계 - 어둠의 세력

다시 한번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일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도 결정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그 세력들과 마주치셨습니다. 강한 해방자로서!¹⁶⁹ 귀신들, 곧 더러운 영들을 그분은 쫓아내시고 달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그들의 권세가 끝나 가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구체적으로 이 세력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력들은 누구이며, 왜 예수의 죽음을 원했을까요? 땅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¹⁷⁰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립니다.¹⁷¹ 이들은 그분의 하늘 가족입니다.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한, 서로 다른 임무를 지닌 여러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려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¹⁷²

우리 인간처럼 그들에게도 자기 창조주께 신실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를 택했습니다.¹⁷³ 그들의 우두머리는 마귀, 곧 사탄이었습니다.¹⁷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거슬러 일합니다.¹⁷⁵ 그들 맞은편에는 신실하게 남아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¹⁷⁶

169. 마가복음 3:27

170. 욥기 38:4-7; 시편 148:2, 5; 골로새서 1:16

171. 욥기 1:6; 38:7; 시편 82편

172. 시편 104:4; 다니엘 6:22; 마태복음 1:20, 24; 16:27; 누가복음 2:13; 사도행전 8:26; 10:7; 12:8; 히브리서 1:7; 13:2

173. 베드로후서 2:4; 유다서 1:6

174. 마태복음 25:41; 에베소서 2:2; 요한일서 3:8; 요한계시록 12:7-9

175. 로마서 8:38; 고린도후서 11:14; 12:7; 에베소서 6:10-17; 요한계시록 12:13; 13장

176. 디모테전서 5:21; 요한계시록 5:11; 7:11; 12:7

세력들과 사람들

사람이 창조된 직후, 유혹하는 자요 살인한 자가¹⁷⁷ 곧바로 등장합니다.¹⁷⁸ 사탄, 곧 옛 뱀이¹⁷⁹ 첫 사람들을 꺾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는 오직 파괴하기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갖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좋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노예 주인이요 폭군으로서. 이 강탈은 성공했습니다. 낙원 동산에서 일어난 그 일 이후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¹⁸⁰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수많은 우상 숭배에서 그것은 뚜렷하게 드러나며, 일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¹⁸¹ 신약성경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묶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¹⁸² 겉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스스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 한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들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복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두워져 있습니다.¹⁸³ 세상은 실제로 아직 사탄의 나라입니다.¹⁸⁴ 예수께서는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십니다.¹⁸⁵ 바울은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까지 부릅니다.¹⁸⁶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일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77. 요한복음 8:44; 요한일서 3:8, 12

178. 창세기 3:1-7; 고린도후서 11:3-4

179. 요한계시록 12:9

180. 창세기 3:23-24

181. 고린도전서 10:20-22

182. 사도행전 26:18; 에베소서 2:1-3; 골로새서 1:13

183. 고린도후서 4:3-5

184. 마태복음 4:8-10

185. 요한복음 12:31; 14:30; 16:11

186. 고린도후서 4:4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의 형편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 나쁘게, 더 출구 없게 만듭니다.¹⁸⁷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실제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이렇게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복음과 세력들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던 영역 속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실 때, 귀신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¹⁸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귀신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창조주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사탄이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맞섰습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나라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 영광, 자기에게 드려지는 경배를 구합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입니다.¹⁸⁹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물리칩니다. 에덴의 아담과는 다르게.¹⁹⁰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귀신들을 다스리고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¹⁹¹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한 심리 현상도 아닙니다. 일상의 현실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그런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세력들에게 자신을 열고 내어 주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87. 마가복음 7:20-23

188. 마가복음 1:23-24; 3:11; 5:7

189. 마태복음 4:1-11; 누가복음 4:1-13

190. 로마서 5:12-21

191. 마가복음 6:7

세력들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¹⁹²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도 보좌도 없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일은 세력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람들을 조종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¹⁹³ 사람으로서 그분은 상처 입을 수 있었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들은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¹⁹⁴ 그분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위한 우주적인 권력 교체였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사람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대속물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시대의 노예 시장이 그 그림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사들여져 자유로 풀려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로 높이시심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이 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마귀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¹⁹⁵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모릅니다. 은혜는 그의 본성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반역이 그를 철저히 원한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¹⁹⁶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¹⁹⁷

192. 고린도전서 2:6-9

193. 누가복음 22:53

194. 히브리서 2:14

195. 히브리서 2:16

196. 에베소서 2:6

197. 로마서 8:1; 고린도전서 1:30

세력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들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저항하며, 복음을 막으려고 이미 진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세력들은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목표에 이른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의 가족을 얻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관여하여 죽게 한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골고다에서, 자신도 모르는 채, 말하자면 자기 무덤을 판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내세우던 빛 증서, 곧 고소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워졌습니다.¹⁹⁸ 십자가로 그분은 세력들을 무장 해제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주의 주이십니다.¹⁹⁹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해방되었습니다.**²⁰⁰ 그는 하나님 나라라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시고 자신의 가족을 얻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죽음과 악한 세력들에게서 해방된 가족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²⁰¹ 그분과 함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집니다.²⁰²

십자가의 승리

로마의 장군들은 성대한 개신 행렬을 이루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패배한 적장들은 사슬에 묶여 함께 끌려왔습니다. 처형되기 전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영역에 속한

198. 골로새서 2:14-15

199. 마태복음 28:18

200. 요한복음 8:33-36; 로마서 6:7, 18, 22

201. 요한일서 3:8

202. 골로새서 1:13-14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거침없이 압도하는 힘을 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²⁰³ 무장 해제되고 드러내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보이지 않는 중간 세계의 마술적인 힘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게 그는 더 이상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래 이어지는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결말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한 선수가 어떤 수를 두면, 체스를 아는 사람은 이제 승부가 났다는 것을 압니다. 게임이 아직 계속되더라도 말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왕으로 결정적인 수가 두어졌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신 왕으로. 승리는 이루어졌습니다.

대적자의 활동은 이제 퇴각하며 벌이는 싸움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십자가라는 골칫거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됩니다!

자유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께 속해 있다면, 귀신들은 달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술과 오컬트에, 영들과 천사들에게 손을 댔더라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여러분을 놓아주려 하지 않고,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를 싹부터 짓밟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여러분을 도와줄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시오.

이 오컬트 세계와 여러분을 이어 주는 모든 것과 소리 내어 관계를 끊으십시오.

이런 마술적이고 오컬트적인 것들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모든 물건을 없애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그런 행위와 관계로 끌어들이는 사람들과는 모든 접촉을 끊으십시오.

203. 골로새서 2:15

보이지 않는 세계는 결코 알아서는 안 될 강력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더 강하십니다.

평화의 복음

베드로는 그의 선생님이 평화를 전하시는 것을 직접 겪었습니다.²⁰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민족들, 곧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도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평화는 복음의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면입니다.²⁰⁵ 이것이 하나님의 살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말은 그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크고 넓습니다. 그 마음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평화는 온전함, 건강함, 성함, 구원받음을 뜻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평화로 이끕니다.²⁰⁶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모든 원수 관계의 끝을 뜻합니다.²⁰⁷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확신으로 이끕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 안에 닳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는지에 닳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참되고 변함없는 평화가 마음에 퍼집니다. 불안 대신 안식. 다툼과 두려움 대신 평화.

크고 작은 전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우리 세상에는 평화가 필요합니다.²⁰⁸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고, 휴전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하나 되게 하는 평화가 필요합니다.²⁰⁹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룹니다. 복음은 평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듭니다.²¹⁰ 하나님께서 인간의 폭력을 단번에 흡수하신 십자가의 설교가 세상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먼저 교회 자체 안에서?

사람들이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 평화를 비추어 내고, 전해

204. 사도행전 10:36

205. 골로새서 1:20; 에베소서 2:17; 6:15

206. 로마서 5:1

207. 로마서 5:10; 고린도후서 5:18

208. 디도서 3:3

209. 마태복음 5:44; 요한일서 4:19

210. 에베소서 2:14-22

주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한²¹¹ 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삽니다.

예수를 통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과 다시 바른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피라는 값을 통해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가 현실이 되려면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²¹²

여러분은 이 평화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그 평화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복음 - 성취된 약속

복음은 궤도를 벗어나 버린 인류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놀라시거나 절망하셔서 내놓으신 반응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고,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입니다.²¹³ 그러므로 복음이 이미 히브리어 성경, 곧 성경의 첫 부분인 구약성경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²¹⁴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한 시점을 향해 나아가는지 묘사합니다. 성경은 그 시점을 **때가 차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때입니다.²¹⁵ 이스라엘에 살던 그분의 동시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를 약속의 성취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²¹⁶ 그러나 열두 제자, 곧 사도들은 곧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과 그들의 편지에 나오는 그들의 복음 선포는 구약성경 인용으로 가득합니다.²¹⁷ 예는 많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성경 곧 구약성경이 자신에 대해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²¹⁸ 여기서는 구약성경에서 짧은 예 세 가지와 몇몇 성경 구절을 들겠습니다.²¹⁹

211. 로마서 12:18

212. 골로새서 1:20

213. 로마서 16:25-27; 디모데후서 1:9; 디도서 1:2

214. 로마서 1:1-3; 갈라디아서 3:14-16

215. 갈라디아서 4:4

216. 사도행전 13:27, 32

217. 사도행전 2:25-31; 로마서 1:17; 3:21-26; 4:17; 10:8-13; 15:9-13; 고린도전서 2:9; 고린도후서 6:2; 갈라디아서 3:16; 베드로전서 1:19; 2:6-9

218. 요한복음 5:39; 7:42

219. 시편 16:8-10; 22편; 31:13; 35:11; 69:4; 이사야 9:2-7; 11:1; 35:4-6; 50:6; 53장; 미가 5:2; 스가랴 11:12; 다니엘 9:25-26

성경의 첫 장들에서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뒤에,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²²⁰ 그때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 예수의 빛 안에서, 그분의 삶과 죽음의 빛 안에서 분명해집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으로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²²¹

인류 역사의 시간표에서 여러 해가 흐른 뒤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등장합니다. 자식이 없는 이 늙은 부부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라고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니, 이 아들, 이삭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²²²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²²³

몇 세기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도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했고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왕좌를 가질 아들을 약속하십니다.²²⁴ 그 아들은 솔로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몇 세기 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한 왕, 다윗 왕가의 혈통에서 나온 직계 후손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²²⁵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며, 머지않아 모두가 볼 수 있게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 이렇게 많은 예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은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예언이 이미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를 가리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220. 창세기 3:15

221. 히브리서 2:14; 로마서 16:20; 요한계시록 12:9-11; 20:10

222. 창세기 12:3; 22:18; 28:14

223. 갈라디아서 3:16

224. 사무엘하 7:12-16

225. 누가복음 3:23-31; 창세기 49:10; 예레미야 23:5-6; 시편 132:11; 로마서 1:3; 디모데후서 2:8; 요한계시록 5:5



복음의 소망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한 분이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언젠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은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엽니다. 우리는 살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소망을 퍼뜨립니다.²²⁶ 그래서 저는 이것을 즐겨 새 창조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으리라고 약속합니다.²²⁷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물에 대해 진지하십니다.²²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행성 전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편으로 왕을 섬기는

226. 베드로전서 1:3-4

227. 로마서 8:18-24

228. 요한복음 3:16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자리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의 땅입니다.²²⁹ 우주의 작은 먼지 한 톨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은 그분이 마음을 쏟으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²³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위해 전혀 다른 것이나 새로운 것을 고안하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땅을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²³¹ 언젠가 그 땅 위에는 더 이상 죽음도, 질병도, 굶주림도 없을 것입니다.²³² 사람이 파괴하는 모든 것,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고삐 풀린 자연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²³³

소망 없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²³⁴ 바로 소망의 복음이²³⁵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²³⁶ 약속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새 집이 될 것입니다.

소망은 부활하신 분 안에 굳게 닳을 내리고 있습니다. 죽었었으나 영원히 살아 계신 분 안에.²³⁷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오셨습니다.²³⁸ 그분을 통해 참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습니다.²³⁹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더 이상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생명입니다.²⁴⁰ 이것이 참된 생명이며 새 창조의 다함 없는 힘입니다. 그 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²⁴¹ 그들은 새 생명과 산 소망으로 거듭났습니다.²⁴²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언젠가 그들은 새 창조

229. 요한계시록 5:9-10

230. 창세기 1:31

231. 이사야 65:17-19; 66:22

232. 요한계시록 7:9-17; 21:1, 4-5

233. 요한계시록 7:16; 22:3

234. 에베소서 2:12; 데살로니가전서 4:13

235. 에베소서 1:18; 골로새서 1:5, 23

236. 베드로후서 1:11; 히브리서 12:27-28; 다니엘 2:44; 7:14, 27

237. 요한계시록 1:17-18; 요한복음 14:19

238. 히브리서 2:14-15

239. 디모데후서 1:10

240. 로마서 6:9-10

241. 고린도후서 5:17

242. 베드로전서 1:3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²⁴³ 그들은 변화된,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²⁴⁴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죽을 몸으로 살던 때의 그 고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인격일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때에 대해 말합니다.²⁴⁵ 그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²⁴⁶ 큰 영광과 능력으로.²⁴⁷ 그날은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결코 끝나지 않을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때입니다.²⁴⁸ 그들은 하나님을 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²⁴⁹ 바로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셨던 일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때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하늘이, 곧 하나님께서 친히 땅으로 오셔서,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가족과 함께 눈에 보이게 사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예수와 같아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입니다!²⁵⁰

그때 땅은 하나의 거대한, 아니 지구 전체에 걸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새롭고 더 나은 에덴이.²⁵¹ 그곳에는 유혹하는 자가 다시는 오지 못할 것입니다. 죄로 이끄는 유혹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지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 설렐 것입니다. 큰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되어야 했던 그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43. 베드로후서 3:13

244. 고린도전서 15:35-58; 빌립보서 3:20-21

245. 사도행전 17:30-31

246. 요한계시록 1:7

247. 마가복음 8:38; 13:26

248. 요한계시록 21:3

249. 요한계시록 22:4

250. 고린도전서 15:49-50; 빌립보서 3:20-21; 요한일서 3:2

251. 요한계시록 2:7; 22:1-5

하나님의 새 세상에 대한 꿈

잠시 하나님의 이 새 세상을 꿈꾸어 봅시다. 우리가 그곳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나쁜 것, 부정적인 것, 파괴적인 것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의 땅에서 우리가 이미 알던 많은 것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생존 투쟁이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

노예 제도도, 억압도, 폭력도, 조종도, 차별도, 모욕도, 범죄도, 전쟁도 없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없고, 그래서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 눈물이 있다면 기쁨의 눈물입니다.

환경 오염도, 재해도 없습니다. 경찰도, 변호사와 법원도, 병원도,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도 없습니다.

지루함도, 헛된 의미 찾기도, 열등감도, 수치심도, 공허함도, 파괴적인 의존과 중독도, 실망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 사람들 사이의 사심 없는 사랑, 완전한 정의,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임, 존중과 관심.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대로 있는 곳. 샘솟는 생명, 다양함, 발전, 자유, 모험, 창의성, 끊임없는 새로운 발견이 있는 곳, 모든 것이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곳.

피곤함과 무기력함과 지침 대신, 힘과 생기와 의욕이 영원히 머무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다니고 탐구하는 곳.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곳.

시간이 멈추어 서 있거나 결코 흘러가 버리지 않는 곳! 아름다운 것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인 곳! 우리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곳.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곳, 우리 마음이 언제나 그리워하던 곳.

풍성함이 넘치는 곳,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아름다운 예술과 음악과 가장 뛰어난 기술이 있는 곳. 오늘날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이 그곳에서는 완성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곳. 창조주께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보호 안에서, 그분의 복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알아 갑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분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늦어도 그때에는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참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수치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 어린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원히 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눈길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가 언제나 그리워하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만나고, 어루만지고,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생명수 샘에서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끊임없이 먹는 것.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부르는 영원의 그림입니다.

그곳,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되어야 했던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으신 그대로 개성 있고 유일한 모습으로. 그곳에서는 꾸밈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땅을 다스릴 것이며²⁵² 그렇게 첫 사람들이 받은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피조 세계의 잠재력이 이전 어느 때보다 펼쳐지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창의성과 다양함과 풍요와 즐거움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아버지께서 그분의 가족과 함께,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께서.²⁵³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1만 년이 지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와

252. 로마서 5:17; 요한계시록 5:10; 22:5

253. 고린도전서 2:9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되고 깊고 환호하는 기쁨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²⁵⁴

복음은 그 자리에 함께하여 크고 영원한 잔치를 함께 즐기라는 초대입니다.²⁵⁵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²⁵⁶ 누구나 초대받았습니다.²⁵⁷ 입장료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²⁵⁸

복음 - 구원을 주는 능력

예수의 제자라면 아무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이 소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²⁵⁹ 복음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작용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돌이킴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를 수 있는 삶의 전환입니다. 그 전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²⁶⁰ 이 능력은 오컬트에 묶인 데서, 그리고 중독에서 구원하고 해방합니다. 많은 사람이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종교나 철학도 복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²⁶¹

우리 인간이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없을 때,²⁶² 바로 그곳에서 이 복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새로 태어나는 기적입니다.²⁶³ 복음은 새 생명을 만들어 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견줄 수 있습니다.²⁶⁴

한번은 어떤 무신론자가 잘 알려진 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토론을 하자고 도전했습니다. 전도자는 응했지만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무신론을

254. 시편 16:11

255. 요한계시록 19:6-10; 21:6; 22:14-15, 17

256. 마태복음 28:19-20; 고린도후서 5:15

257. 마태복음 22:1-14

258. 로마서 3:24; 요한계시록 21:6; 이사야 55:1

259. 로마서 1:16-17

260. 데살로니가전서 1:5-10

261. 요한복음 8:36; 로마서 6:18

262. 로마서 5:6

263. 요한복음 3:3; 베드로전서 1:3; 디도서 3:4-7

264. 고린도전서 4:15;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통해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뀐 사람들을 무신론자가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무신론을 통해 새사람이 되었거나 중독과 의존에서 해방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도자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해방되고 새사람이 된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 안에 깃든 능력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때 펼쳐진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실제 능력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보셨습니까?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목말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됩니다.²⁶⁵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습니다.²⁶⁶

복음에 대한 반응은 한편으로는 무관심이나 거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입니다.²⁶⁷ 복음을 머리로 참이라고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²⁶⁸ 사람 전체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²⁶⁹ 사람들은 이 소식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믿음으로써 복음의 부름에 순종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그것을 순종의 걸음으로 느끼지 않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느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이루는 모든 것에서 돌아섭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상들에게서 돌아섭니다.²⁷⁰ 그들은 자기 삶

265. 베드로전서 2:2

266. 베드로전서 4:2-3

267. 사도행전 2:37-41

268. 야고보서 2:19

269. 로마서 1:5; 16:26; 요한일서 2:3-4; 3:24; 5:2-3

270. 사도행전 11:21; 14:15; 데살로니가전서 1:9-10; 베드로전서 4:3

속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²⁷¹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를 붙잡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복음이 능력과 큰 확신과 명료함으로 선포될 때, 복음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끕니다.²⁷²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습니다. 삶의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일으키시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습니다.²⁷³

예수의 제자가 되기

예수께로 돌아서는 일은 흔히 하나의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와 맞게 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작은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라 가고 배워 가는 길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학생, 곧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제자는 열두 명보다 많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배우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그분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²⁷⁴

예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된 뒤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²⁷⁵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

제자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왕이신 예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이 때로는 눈에 띄지만, 조심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우십니다. 그들

271. 사도행전 19:18-20; 요한일서 1:9; 잠언 28:13; 시편 51편

272. 데살로니가전서 1:5

273. 골로새서 2:13; 요한일서 3:14

274. 요한복음 8:31

275. 사도행전 11:26

안에서 복음은 마음의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도록 자라는 씨앗처럼 일합니다.²⁷⁶ 어떤 사람에게서는 빨리, 어떤 사람에게서는 더 오래 걸립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새로운 영적 생명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²⁷⁷ 복음을 점점 더 잘 깨닫는 일은 그 과정에서 계속 배우는 과정으로 남습니다. 이 배움은 머리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행하고 살아 냄으로써 일어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제자가 되는 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 복음은 하늘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아니며, 저세상을 바라보며 위로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의 이 삶을 이미 바꾸어 놓는 것이고, 그 변화는 언젠가 영원과 영광 속에서 이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 이미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외적인 표징이 있습니다. 세례입니다.²⁷⁸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세력들 앞에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구속자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인 칩니다. 물세례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은 입장을 바꾸는 일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맨 처음에 있습니다. 세례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도 삶을 이루는 모든 일을 계속합니다. 잠자고, 먹고, 일하고, 학교에 가는 등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태도와 동기, 삶과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기 하나님에게서 온 새 생명의 열매로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늘 시험을 받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존재도 싸움 속에 있습니다. 저항은 밖에서만

276. 마가복음 4:20; 요한복음 15:8

277. 로마서 6:21-22; 7:4; 에베소서 5:9; 골로새서 1:10; 디도서 3:14; 히브리서 13:15; 베드로후서 1:8

278. 마태복음 28:19; 마가복음 16:16; 사도행전 2:38-41; 8:12, 36-38; 9:18; 10:47-48; 16:15, 33; 18:8; 로마서 6:3; 갈라디아서 3:27; 에베소서 4:5; 골로새서 2:12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옵니다. 우리의 옛 존재, 옛 습관, 우리 안의 죄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모두 착각이었던 것처럼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보혜사와 능력과 돕는 분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이웃과 서로를 사랑합니다!²⁷⁹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가장 큰 것으로 남습니다!²⁸⁰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으로 알려집니다!²⁸¹

제자들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씁니다!²⁸² 그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데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함께 성찬에서, 떡을 떼며,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정기적으로, 또는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합니다.²⁸³ 그들의 예배를 위해 교회 건물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집에서 모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혼자서도, 함께도!²⁸⁴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분과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든 함께든 경배와 찬양은 그들에게 큰 기쁨입니다.²⁸⁵

예수의 제자들은 성경을 읽습니다!²⁸⁶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알아 갑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에서,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그분의 인도와 가르침을 경험합니다.

279. 마태복음 22:36-40; 요한복음 13:34-35; 15:13-17; 고린도전서 13:4-7

280. 고린도전서 13:13

281. 요한복음 13:35

282. 사도행전 11:29

283. 고린도전서 11:23-27

284. 마태복음 6:5-15; 요한복음 16:26-27; 데살로니가전서 5:17

285. 요한복음 4:23

286. 골로새서 3:16; 디모데후서 3:16; 베드로전서 2:2

예수의 제자들은 고난을 받습니다.²⁸⁷ 예수께서 박해를 받으셨듯이, 그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을 당하는 것,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세계 몇몇 나라에서처럼 오늘날에도 죽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²⁸⁸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²⁸⁹ 복음은 사람들을 무언가 특정한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준비가 된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²⁹⁰ 예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틀어박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라 가고 깨달아 가는 과정에 대해 말합니다.²⁹¹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²⁹²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온전한 용서 안에서 삽니다.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²⁹³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잘못했을 때는 서로에게도 고백합니다.²⁹⁴ 그들은 은혜 아래 살고,²⁹⁵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²⁹⁶ 그들의 목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이 계명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²⁹⁷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목표는 성령의 좋은 열매가 눈에 보이게 되는

287. 사도행전 14:22

288. 요한복음 15:18-20

289. 마태복음 28:18-20

290. 누가복음 14:26-27, 33; 사도행전 14:21

291. 요한복음 3:30; 골로새서 1:10; 데살로니가후서 1:3; 베드로후서 3:18

292. 로마서 6:12-14

293. 히브리서 10:14; 요한일서 1:5-2:2

294. 야고보서 5:16

295. 사도행전 13:43

296. 로마서 6:14

297. 요한복음 7:39; 14:17; 고린도전서 2:12; 6:19

것입니다.²⁹⁸이 열매는 무엇보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모두 합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사신 삶입니다. 그분처럼 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목표입니다.²⁹⁹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 삶에서 생겨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따르게 하는 능력이십니다.³⁰⁰ 이 영은 우리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요 함께하심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은 상담자, 코치, 트레이너, 돕는 분, 인도자를 한 분 안에 겸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께서 여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하셨을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서로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³⁰¹

제자의 삶은 편안한 놀이도, 산책도, 안락의자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처럼 살고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의무도 따르는 새로운 삶의 좌우명입니다. 예수의 제자에게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언제나 첫자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³⁰²

예수 말고는 아무도 **나를 따르라!**고 말할 권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³⁰³ 그래서 첫 맞바람에 벌써 날아가 버리지 않는, 튼튼하고 참되며 깊이 생각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오르막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은 저절로 굴러갑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³⁰⁴

298. 갈라디아서 5:13-26

299. 고린도후서 3:18

300. 사도행전 13:52; 로마서 8:12-17

301.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3-8

302. 마태복음 6:33

303. 누가복음 14:28

304. 마태복음 7:13-14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싸움과 시험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전체에 이 말이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들을, 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던 그 순간과 똑같이 사랑합니다.³⁰⁵

복음을 외면하기

복음은 위협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용서로, 자유로, 생명으로, 의미로 가는 길을 엽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이 소식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불이나 허리케인이나 오염된 식수나 댐 붕괴를 경고하는 소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길과 피할 곳을 알려 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소식이 과장되었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잘못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세상의 주님을 증언함으로써 복음을 전했습니다.³⁰⁶ 그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꾸면 그분 안에서 용서가 가능하다고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이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날이 오며 그날이 확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십니다. 누구나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하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³⁰⁷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305. 요한복음 16:27; 17:23

306. 사도행전 4:2; 8:12, 25, 35, 40; 11:20; 17:18

307. 요한복음 5:22-29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경고입니다. 모든 것이 - 예외 없이 모든 것이 -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몰래 생각하고 행한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것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까지.

우리 깊은 곳, 마음과 양심 속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좋다 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 생각과 감정을, 그 주에 우리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 앞에서 화면에 공개적으로 띄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것이 꽤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는 성경에서 결코 사소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돌려 보아도,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기쁨을 주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³⁰⁸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³⁰⁹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³¹⁰

그런데 내가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분의 소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정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믿도록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시려고 찾으시고 애쓰십니다.³¹¹

물에 빠져 가는 사람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두고 물에 빠진 사람을 억지로 구조하려 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복음 안에서 일하시며

308. 로마서 8:1

309. 요한복음 1:12

310. 요한일서 4:16-19

311. 누가복음 19:10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치십니다.³¹²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³¹³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잃어버린 자이며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중립 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을 안고 홀로 남게 됩니다. 모든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려 하겠습니까, 또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³¹⁴ 그러나 그분은 빛이시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³¹⁵ 그분의 소식을 거슬러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께, 그리고 그분이 사랑으로 그를 위해하신 모든 일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에게나 값없이 내미시는 모든 것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³¹⁶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실재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³¹⁷ 죄를 철저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려 주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죄는 그분의 가장 깊은 곳을 아프게 합니다. 그분은 근심하십니다.³¹⁸ 그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분 없이는 비참함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 없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듯이, 그분의 진노도 그렇습니다.

312. 요한복음 16:8

313. 히브리서 4:12-13

314. 요한일서 3:1; 4:7-8, 16

315. 요한일서 1:5; 요한계시록 4:8

316. 마태복음 12:30

317. 요한복음 3:36; 로마서 1:18; 2:5, 8; 3:5; 5:9; 에베소서 2:3; 5:6; 골로새서 3:5-6; 요한계시록 6:16-17; 11:18

318. 마가복음 3:5

그러나 이 진노 역시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순간의 걱정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절제 없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십니다!³¹⁹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죄의 결과와 영향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³²⁰ 홀로 남겨지는 것,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낸 모든 문제를 안고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 아무도 그런 일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노란, 심판의 날에 나의 죄를 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심과 마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분께 저지르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형태의 악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자신의 사랑을 부인하시는 셈이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정의를 보장할 수 없다면,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증언합니다.³²¹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³²²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들여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는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좋은 소식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 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³²³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아니요”

319. 출애굽기 34:6

320. 로마서 1:26

321. 고린도후서 5:19-20

322. 고린도후서 5:11

323. 로마서 2:12; 고린도전서 1:18; 15:18; 고린도후서 2:15; 4:3; 데살로니가후서 2:10; 베드로후서 3:9

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곳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집에 있지 않고, 외롭고 뿌리 뽑힌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시려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³²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에 대한 정당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³²⁵ 그 판결은 완전히 공정할 것입니다.³²⁶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³²⁷ 진리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끈질기게 거역한 사람은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곤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³²⁸ 때로는 이미 이 땅의 삶에서, 그러나 분명히 죽음 뒤에. 속죄되지 않은 자기 죄를 똑바로 마주하고, 자기 죄와 다시 한번 맞닥뜨리는 것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신이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영생과 지옥

예수께서는 영광 가운데 누리는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고³²⁹ 영원한 불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³³⁰ 그분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³³¹ 울며 이를 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³³²

실제로 지옥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 분은 예수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³³³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말은 **게헨나(Gehenna)**입니다. 당시 이것은 실제 장소, 예루살렘 근처의 한 골짜기였습니다. 예수 시대에는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던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같은

324. 누가복음 15:4, 24; 요한복음 3:16; 베드로후서 3:9

325. 고린도후서 5:10

326. 요한계시록 20:11-15; 21:8

327. 갈라디아서 6:7-8; 민수기 32:23

328. 로마서 2:5-11

329. 요한복음 3:36; 5:24; 6:47, 51; 10:28; 11:26; 로마서 5:21; 6:23; 요한일서 2:25; 5:11, 13

330. 마태복음 25:34, 41, 46

331. 마태복음 8:12; 22:13; 25:30; 요한복음 8:12; 12:46

332. 마태복음 8:12; 13:42, 50; 22:13; 24:51; 25:30; 누가복음 13:28

333. 마태복음 5:22-30; 10:28; 18:9; 23:33

골짜기를 힌놈의 아들 골짜기(벤힌놈)라고 부른 선지자 예레미야도 염두에 두십니다.³³⁴ 이곳은 우상 숭배로 악명 높은 곳이었고, 거기서 아이들까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니 수치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파멸의 상징이었습니다. 멸망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늘 살던 대로 계속 살려는 사람, 자기 죄 속에 머물려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거슬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의 영광에서 제외된 채로 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누릴 삶이며 미래입니다.³³⁵

지옥은 경고로서 강렬한 그림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곡히 경고합니다. 지옥은 “큰 죄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히틀러(Hitler), 스탈린(Stalin), 마오쩌둥(Mao) 같은 대량 학살자만 생각하지 맙시다. 가학자나 아동 성범죄자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판결을, 우리 기준으로 보아 아무 잘못도 없거나 잘못이 적은 사람의 판결과 똑같이 공정하게 정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³³⁶

지옥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성경도 침묵합니다. 그러므로 상상을 덧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정화를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만 그곳에 있다가 결국 영생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을 읽고, 각주에 있는 본문들을 찾아보십시오. 가장 나쁜 경우를, 최악의 경우를 전제하십시오. 쓰라리게 실망하는 것보다 기분 좋게 놀라는 편이 낫습니다.

334. 예레미야 7:31; 19:2-7; 32:35; 이사야 66:24

335. 요한계시록 21:8, 27; 22:15

336. 로마서 3:23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니요”를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을 아프게 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하셨듯이 그분이 탄식하시는데도 말입니다.³³⁷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게 될 것이고, 자신의 거부와 죄의 결과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³³⁸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고, 이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는 자원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참입니다.³³⁹ 사람은 죽음이나 생명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³⁴⁰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 내일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³⁴¹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복음이 널리 퍼질수록, 원래의 복음과 더 이상 맞지 않는 판본들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기원후 1세기에, 예수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의 위조품에 대해 경고합니다.³⁴² 그것들은 원래의 복음과 비슷해 보이고, 진짜와 헛갈릴 만큼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을 빼거나 더하는 축소된 판본들도 있습니다. 거짓되고 오도하는 판본들도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 줍니다. 우리 자신을 개선하려는 모든 시도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³⁴³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아들이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필요한 보충물로 덧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행위로 얻는 의를 섞거나

337. 마태복음 23:37

338. 요한계시록 2:11; 20:6, 14; 21:8

339. 이 생각은 C. S. 루이스(C. S. Lewis)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Über den Schmerz”, *The Problem of Pain*, 한국어판 『고통의 문제』).

340. 신명기 30:15-19

341. 갈라디아서 2:5, 14; 에베소서 1:13; 골로새서 1:5; 디모데전서 2:4

342. 고린도후서 11:1-4; 갈라디아서 1:6-9

343. 로마서 3:20, 28; 갈라디아서 2:16; 3:10

보충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값어치 없게 만들고 값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도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 성경은 이것을 회개와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기심과 죄로 물든 자기실현의 삶을 위한 무임승차권이 아닙니다.³⁴⁴ 살아 있는 믿음은 언제나 삶의 깊은 전환으로 이어집니다.³⁴⁵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인 새로운 삶으로 이끕니다.³⁴⁶ 새로운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과 그 후가 있습니다. 작거나 큰 행동과 말 속에서 눈에 보이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믿음 자체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합니다. 선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그 믿음이 선한 행위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새 생명의 증거입니다.

참된 복음에는 덧붙일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음, 이것이 그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이 묘사하는 그대로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³⁴⁷ 변질된 복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은 어떤 교회나 교파를 위한 광고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에 이르는 모든 사람에게 집이요 고향입니다.

344. 로마서 6:1; 베드로후서 1:9-11

345. 야고보서 2:18-26

346. 베드로후서 2:1; 유다서 1:4

347. 유다서 1:3

복음은 많은 곳에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세상 개선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수의 많은 제자들의 이웃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병원, 고아원, 노예 제도의 폐지는 사람들 안에서 모습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일해야 합니다.³⁴⁸ 불의를 - 전 지구적인 불의도 - 분명히 이름 붙여 말하고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인 힘을 풀어놓습니다. 십자가의 소식은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음을 증명한 유일한 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크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주고, 돕고, 보호하고, 해방하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랑하는 것! 많은 곳에서 무언가가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서 일하시며, 언젠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혁하고, 그 정치적, 사회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제자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와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안에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새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사회에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영향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닙니다. 자기 최적화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는 우리 삶을 세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안에서 씬을 얻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거기에 “예”라고 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습니다.

348. 마태복음 5:13

그러나 번영이나 부는 결코 복음의 약속이 아닙니다. 배척과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이웃보다 오히려 더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맺는 말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간단히 훑어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소식입니다. 용서와 받아 주심을 선물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를 통해 해방하고 용기를 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말해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말해 줍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이 와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동전과 작은 지폐로 나누어 지급되는 큰 지폐와 같습니다. 이 소식의 내용을 점점 더 많이 붙잡고 꿰뚫어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작은 걸음으로, 때로는 큰 걸음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동안. 일상 속에서. 참된 깨달음은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랄 뿐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자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³⁴⁹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복음의 위대함과 넓이를,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이 땅의 삶과 영원에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의 기념비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 보십시오!

349. 로마서 1:1-5, 9, 15-17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모든 좋은 말씀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hj-ronsdorf@t-online.de

다른 책과 글과 설교는 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hans-joerg-ronsdorf.de



몇 가지 중요한 도움말을 덧붙입니다:

-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규칙적으로.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 그리고 읽은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살아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 마치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 본문을 읽으십시오. 소리 내어 여러 번 읽으면 가장 좋습니다.

본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 이 본문에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 이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용기를 줍니까?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의 경험과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이며,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읽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고 교제하십시오.



Ist das Evangelium von Jesus eine gute Nachricht? Warum eigentlich?

Nehmen Sie sich etwas Zeit und entdecken Sie die Originalität des Evangeliums aus unterschiedlichen Blickwinkeln.

Einfach und gut verständlich geht es hier um das große Ganze.